

치과위생사 수행업무에 관한 치과의사의 견해조사

한양금¹, 김승희², 양진영³, 유지수⁴, 배수명^{5,6†}

¹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과, ²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³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⁴구미대학교 치위생과, ⁵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⁶구강과학연구소

A survey of dentists' opinions on the performance of dental hygienists

Yang-Keum Han¹, Seung-Hee Kim², Jin-Young Yang³, Ji-Su Yu⁴, Soo-Myoung Bae^{5,6†}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wangju Health University, ³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⁴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umi University, ⁵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Dentistry, ⁶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opinions of dentists on dental hygienists' practice and attempted to use it as the basis for the revision and mod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associated with dental hygienis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15 dentists, including two from Gyeonggi, two from Gangwon, two from Gyeongsang, two from Jeolla, two from Chungcheong, and two from Seoul, who were surveyed face-to-face. This study reveale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dentists, the most important job of dental hygienists was scaling, and the most difficult job was patient counseling and response. From the perspective of dentist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what the dental hygienists actually perform and what is legal, and there is a high need for change.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should be accomplished to cover the practice of dental care support, and dentists opinionated that it is appropriate for dental hygienists t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because they directly perform oral health-related procedures. A careful review of the dental hygienists' scope of work should be performed to ensure that revisions to the law a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dental hygienists' actual practice. Furth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edical Law and include dental hygienists among the medical personnel and simultaneously revise the scope of work of dental hygienists to reflect the actual dental practice.

Key Words: Dental hygiene, Dental hygienist, Legal practice, Actually performing practice, Opinion of dentist

Received: October 10, 2019 **Revised:** October 16, 2019 **Accepted after revision:** October 16, 2019

†Correspondence to Soo-Myoung Ba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7 Jukheon-gil, Gangneung 25457, Korea

Tel: +82-33-640-2756, **Fax:** +82-33-642-6410, **E-mail:** edelweiss@gwnu.ac.kr

I. 서론

1965년부터 시작된 치과위생사교육은 지난 50여 년간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3년제 전문학사과정과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다. 2016년 기준 치과위생사면허 보유자는 7만여 명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냈고(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2016), 치위생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개설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있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영역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치위생학 교육계는 새로운 교육목표를 정립하고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Cho, 2005; Cho and Lee, 2005).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하여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2011. 11. 16. 대통령령 제232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업무에 한하여 수행해야 하나, 법률에 명시된 업무 외에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몇 가지 항목으로 나열할 수 없는 의료행위와 치과진료보조 업무까지도 치과 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하고 있다. 이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실제로 이로 인한 행정처분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Shin et al, 2018). 또한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법령에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사이의 불일치로 인하여 치과의료현장에서 업무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이직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예상케 한다(Gwon and Jung, 2004; Kim and Shin, 2008; Kim and Kim, 2011; Yoo and Han, 2011). 이러한 상황은 치과위

생사의 심리적 박탈감 및 업무만족도 저하와 함께 업무 이탈과 이직으로 이어진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의료분야의 경우에는 의료법 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역할과 체계가 비교적 확고히 정립되어 있으나 치과분야의 경우, 진료실 내 치과의료에 관한 동일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으로 분리하여 규정되고 있어 법적 업무체계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Jang et al, 2003). 또한,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도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개인 진료기관 치과의사들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관한 요구사항과 일부 치과대학 교수들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관한 의견이 배치되기도 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 개정에 대한 합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의료인력은 건강증진 및 향상에 참여하는 인력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자원 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의료 조직의 최종 성과가 국민의 건강임을 고려할 때 의료 인력 개발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Shin et al, 2013).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도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직업관과 전문직업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치과위생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치과위생사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정비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도구는 대전보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접수번호 IRB no. 1041490-20170118-HR-001)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들의 토의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각 지역 치과의

사회를 대표할 수 있거나 치과계를 대표할 수 있는 경기 2명, 강원 2명, 경상 2명, 전라 2명, 충청 2명, 서울 2명의 치과의사를 추천받아 총 15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분석

치과위생사 관찰연구(사전조사)를 통한 업무와 치과위생사 대면조사를 통한 결과에서 나타난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관한 견해를 치과의사들에게 자료로 제공하였다. 치과위생사 관찰조사는 연구조사자 2인이 대학병원 치과 1곳, 치과병원 1곳, 치과의원 5곳에 방문하여 각 치과위생사의 직무를 1일 중 오전 또는 오후 또는 1일 동안의 모든 업무를 분 단위로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치과의사 대상 대면조사의 설문 구성은 단답형 문항으로 일반적 사항- 대학졸업년도, 임상경력, 이직횟수, 전문진료여부, 근무기관 내 치과위생사 수, 서술형 문항으로 치과위생사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치과위생사와 근무 시 가장 어려운 점, 치과위생사의 주 역량, 치과위생사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와 실제 업무의 괴리 여부와 그 이유,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의 변화와 변화 범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대면조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하였고, 치과위생사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치과위생사와 근무 시 가장 어려운 점, 치과위생사의 주 역량, 치과위생사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와 실제 업무의 괴리 여부와 그 이유,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의 변화와 변화 범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은 질적 연구로 기술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치과의사 대면조사 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는 Table 1과 같이 치과의사 총 15명이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subjects of dentist survey

구분	n (%)	range
졸업년도(n=15)		
1900년대	6 (40.0)	1974~1995
2000년대	9 (60.0)	2000~2007
임상경력(n=14)		
15년 미만	4 (28.6)	1~12
15년 이상 25년 미만	7 (50.0)	15~24
25년 이상	3 (21.4)	25~40
이직횟수(n=10)		
4회 미만	5 (50.0)	1~3
4회 이상	5 (50.0)	4~6
전문진료여부(n=8)		
유	5 (62.5)	-
무	3 (37.5)	-
고용 치과위생사수(n=15)		
3명 미만	5 (33.3)	0~2
3명 이상 10명 미만	8 (53.3)	3~7
10명 이상	2 (13.3)	10~17
고용 치과위생사의 경력(n=78)		
1~2년차	28 (35.9)	-
3~5년차	14 (17.9)	-
5~7년차	8 (10.3)	-
7~9년차	11 (14.1)	-
10년차 이상	17 (21.8)	-

있으며, 그 중 50.0%는 15년 이상 25년 미만의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함께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수가 3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3.3%에 해당되었으며, 3명 미만인 경우가 33.3%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경력은 1~2년차가 3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0년차 이상인 치과위생사는 17명으로 전체의 21.8%를 차지하였다.

2.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치과위생사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를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한 공통적 의견으로는 ‘인성 및 성품’, ‘근면 및 성실성’, ‘전문성 및 직업관’, ‘의사소통

및 공감능력'이 있었고, 각 치과의사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 의견으로는 '외모', '치과위생사의 윤리', '진료에 대한 의료윤리', '업무에 임하는 진정성', '장기간 근무 가능 여부' 등이 있었다. 인성 및 성품은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인성과 성품이 좋다면 모든 면에서 충돌 없이 협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조직화합형인 성격이 무난하며, 이는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근면 및 성실성은 인성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항목이었다. 근면하고 성실한 치과위생사는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근면성 및 책임감이 높아야 한다고 하였다. 전문성 및 직업관(소명의식)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 시 전문적 지식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의사소통 및 공감능력은 의사소통과 공감능력이 뛰어난 치과위생사는 실제로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며, 동시에 환자들도 공감하는 치과위생사를 빠르게 알아차리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환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환자의 구강건강

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외모는 채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외모는 전체적인 체형, 이미지, 밝은 인상, 분위기 등을 모두 포괄하는 외모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환자의 반응이나 호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가장 강력한 설득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의료윤리는 치과진료와 관련된 의료윤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측면을 중요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에 열거한 항목 외에 기타 항목으로는 업무에 임하는 진정성과 장기간 근무가능 여부 등이 있었다.

3.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치과위생사와 근무 시 가장 어려운 점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와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공통적 의견으로는 휴직과 이직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이 가장 많은 공통적 의견이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치과진료임에도 치과의사와 치

Table 2. Top priority of dental hygienists' main compet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dentists (n=15)

순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주 역량 최우선순위	응답자 n (%)
1 (공통)	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	5 (33.3)
1 (공통)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5 (33.3)
3	임상치과 업무에 관련된 지식과 술기의 통합적 적용능력	3 (20.0)
4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2 (13.3)

Table 3. Dental hygienists' job importance and difficulty from the perspective of dentists

순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직무 중요도	직무 난이도
1	스케일링	환자상담 및 응대
2	환자상담 및 응대	스케일링
3	인상채득	인상채득
4	TBI, 실런트, 멸균과 소독	임플란트 수술 보조, 임시치아제작, 실런트
5	방사선사진 촬영	방사선사진 촬영
6	진료 및 수술보조	진료 보조

과위생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치과위생사 스스로 가지고 있던 기존 진료스타일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서로 맞추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치과 의사마다 조금 다르게 존재한 의견으로는 자연차 치과위생사의 첫 근무 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평생학습의지)가 부족한 경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다른 직종과의 업무 분담 시 갈등', '환자와의 소통 부족' 등이 있었다.

4. 치과 의사가 생각하는 치과 위생사의 주 역량 우선순위

치과 의사가 생각하는 치과 위생사의 주된 역량은 '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임상치과 업무에 관련된 지식과 술기의 통합적 적용 능력',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전문가적 행동과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주된 역량이라고 판단한 이유로는 환자의 신체 중 일부인 구강을 상대하는 전문가로서 소명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진료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환자의 경제적 및

신체적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며, 환자를 치유시켜야 하는 윤리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중요한 역량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모든 사회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며, 치과 위생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임을 자각해야 하고, 그 중 공감능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며, 이는 진료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임상치과 업무에 관련된 지식과 술기의 통합적 적용 능력은 치과전문가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며, 이는 치료계획을 잘 이해하고 진료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치과전문가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며, 환자의 신체 중 일부인 구강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능력은 올바른 진료행위의 기본이며, 양호한 진료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 '근거중심의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치위생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임상치과 업무에 관련된 지식과 술기의 통합적 적용 능력', '치과경영 및 병·의원관리능력', '효율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관리능력' 외에 필요

Table 4. Dental hygienists' job importance and difficulty from the perspective of dental hygienists

순	치과위생사가 생각하는	
	직무 중요도	직무 난이도
1	스케일링	스케일링
2	인상채득	인상채득
3	임플란트 1차 수술/수술보조	임플란트 1차 수술/수술보조
4	환자상담/응대/안내	환자상담/응대/안내
5	임시치아제작	임시치아제작, 임플란트 인상채득
6	임플란트 인상채득	보철물 셋팅
7	방사선사진 촬영	방사선사진 촬영, 발치보조, 진료보조
8	보철물 셋팅	수술준비, 임플란트 2차 수술, 임플란트 보철물 셋팅
9	발치보조, 임시충전과 제거, 진료보조	임시충전과 제거, 교정용 와이어 탈착
10	수술준비, 근관치료보조	전화상담, 비용상담, GI/레진 충전보조

한 역량으로는 ‘치과진료 보조업무능력’, ‘진료환경 감 염관리 역량’, ‘조직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자가 치아관리를 설명하고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5.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관찰 결과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

최근 치과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하루 업무를 관찰 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치과의사의 중요도와 난이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Table 3, 4).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가장 중요도 높은 업무는 스케일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환자상담 및 응대, 인상채득 순이었으며, 멸균과 소독, TBI, 실린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반면,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가장 난이도 높은 업무로는 환자상담 및 응대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스케일링이었다. 그 외로는 임플란트 수술 보조, 임시치아제작, 인상채득, 실린트의 업무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6.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업무관찰 결과지에 근거한 실제 업무 간 차이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Table 5), 이를 초래한 이유로는 과거와 현재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위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현재의 법

Table 5. The presence of a gap between legal and actual work

구분	법적 업무와 실제 업무 간 차이 여부
예	10 (66.7)
아니오	5 (33.3)

적 업무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점이 꽤 존재하며, 외국 치과위생사와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업무가 국가별로 상이한 차이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실제 진료실 내 치과임상업무의 법적 업무범위가 좁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교육훈련을 통해 수행 가능한 업무인데 법적 업무에는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이 단지 8가지 법적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7.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한 변화 필요성

변화가 필요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는 외과적 술식(수술)에 대한 보조업무의 개선, 방사선 사진 촬영 범위의 확대(파노라마, CT 촬영 등 구강 외 X-ray 촬영), 구강보건과 예방 중심의 업무를 좀 더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 임시치아 제작업무, 진료보조 및 수술, 드레싱, 중간단계의 교합조정, 수복물 접착 등이 있었다. 이 중 구강보건과 예방 중심의 업무는 치과주치의와 같은 예방중심의 계속관리운영 체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이나 보험제도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예방업무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많은 치과에서 행하고

Table 6. Necessity of change in legal practice

구분	법적 업무의 변화 필요 여부
예	9 (60.0)
아니오	6 (40.0)

Table 7. Pros and cons of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n=14)

구분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찬성 여부
찬성	11 (78.6)
반대	3 (21.4)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인정이 필요하며, 법적 업무를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Table 6).

8.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실제로 하고 있는 치과진료(수술) 보조 업무를 포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을 직접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인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Table 7). 간호사의 업무 중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할 업무가 다소 존재하며,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됨에 따라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전문가로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며, 간호사와 동등한 지위 확보를 통해 진료실을 넘어 치과의료 현장에서의 능력 발휘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찬성의견의 또 다른 이유는 실질적인 의료인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책임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는 현재 사무장 치과 혹은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치과위생사가 치과(병)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료기사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차이가 존재하며, 의료인이라는 명칭을 획득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료인으로서 역할에 대한 고민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였다.

IV. 고찰

본 연구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수행

업무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치과위생사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정비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고자 할 때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통점으로는 '인성 및 성품', '근면 및 성실성', '전문성 및 직업관(소명의식)', '의사소통능력'이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는 기본적으로 치과임상, 치위생관리 등의 종합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춘 전문가적 임상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구강건강증진과 적절한 예방처치를 위해서는 근거중심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 전문 직업정신, 윤리적 의사결정, 올바른 의사소통과 리더십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치위생학의 철학과 기본에 충실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Bae et al, 2014).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치과위생사와 근무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공통적으로 '휴직과 이직', '진료에 대한 생각 및 가치관 차이' 등이었다. 최근에 조사한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이직의 원인으로 임금, 복지불만, 업무과다, 치과의사와 직원의 관계, 결혼과 출산 등이 있었고 이 중 임금에 대한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ang et al, 2018). 치과위생사의 이직요인에 관련한 다른 연구에서도 이직의 원인으로 연봉, 야간업무, 업무영역, 개인적 사유 등의 여러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6). 치과위생사의 휴직과 이직에 대한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근로복지 및 업무환경 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 환경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치과의사 및 동료 치과위생사와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진료에 대한 가치관 및 생각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방안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주 역량 중 가장 우선적인 역량은 '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치과위생사의 임상적 지식 및 술기능력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신체 중 일부인 구강을 다루는 치과위생사는 전문가적 행동 및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환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내 행동과학, 의사소통, 심리학 등의 인문사회학적 교과목이 다수 개설될 필요성이 있으며,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심층적 내용으로 다뤄질 필요성이 있다.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치과위생사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로는 ‘스케일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직무로는 ‘환자상담 및 응대’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면 치과위생사가 생각하는 직무 중요도 및 난이도 1순위는 모두 ‘스케일링’으로 나타났다. ‘인상채득’, ‘임플란트 1차 수술/수술보조’가 그 뒤를 이었다. ‘환자상담 및 응대’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와 난이도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생각 차이가 존재하였다. 같은 임상 현장에서 서로 생각하는 중요도 및 난이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가 ‘스케일링’이라는 점은 모두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업무와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진료 시 치과진료팀 내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지속적인 치과진료 인력 간 교류를 통해 진료실 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치과위생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법적 업무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의료기사법에 근거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는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어서 직종간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으므로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법률 개정과, 의료계의 변화와 미래 지향적 국가 방향에 따라 업무를 포괄적으로 새로이 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3년 대한치과위생

사협회에서 치과위생사 405명을 대상으로 수행업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1.9%가 치주낭 측정, 45.7%가 치근활택술 시행, 55.3%가 임시충전하기, 60.0%가 보철물 장착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et al, 2004). 이러한 행위는 치과적 치료 행위이자, 진료수가가 결정되어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이며, 최근 몇 년 동안에 갑자기 일어난 비이상적 진료행태가 아닌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현장에서 다수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에 의해 위임받아 수행해왔던 업무이다. 현재 임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적 치료과정에 포함되는 행위이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며, 환자로부터 진료수가에 근거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받는 행위로서 진료보조 업무가 아닌 진료행위로 고려할 수 있다(Shin et al, 2018). 치과위생사 업무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진료보조 행위여부 또는 의료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치과의료 서비스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객관적인 방법과 치과위생사직무 분석에 기초한 치과의료 기술의 난이도 및 업무량에 근거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의 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의 개선과 의료인화에 대한 검토는 치과계 공동 노력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토대가 공공부문과 치과(병)의원에 마련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의 범주로 인식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야 한다. 진료현장에서 다수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에 의해 위임받아 수행해왔던 업무는 치과적 치료과정에 포함되는 행위이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며, 환자로부터 진료수가에 근거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받는 행위로서 진료의 보조가 아닌, 진료행위이다(Shin et al, 2018). 그러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치과위생사가 임상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실제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치과의사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해 치과의사의 견해를 정리함으로써 추 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V. 참고문헌

- Bae SM, Shin SJ, Jang JH, Jung WK. Implementation of assessment in a competency-based dental hygiene science education. Seoul: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 2014.
- Cho YS. Comparison of curriculum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 for B. S degree. J Dent Hyg Sci 2005;5(4):251-8.
- Cho YS, Lee SY. Developing a integrated curriculum for a clinical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05;5(1):33-8.
- Gwon MY, Jung MH. Study of dental hygienist's stress degree and adaptation method. J Dent Hyg Sci 2004;4(3): 133-40.
- Jang HS, Park SK, Yoo SJ. Demand and supply planning for the dental professions. Seoul: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3.
- Kang HS, Jung YR, Cho YY. Survey on the working environment of national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8;18(6):863-78.
- Kim JH, Kim HJ. Relationship between turnover and job stress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1;11(1): 47-53.
- Kim NH, Lee SM, Park SK, Kim SI, Park JE. Educational needs and policy task of the fields activity for career interrupted dental hygienist. Seoul: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2016.
- Kim YS, Shin MW.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 works. J Korean Soc Dent Hyg 2008;8(3):161-75.
-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Current status of dental hygienists & legal revision of health care technicians. Available from: <http://kdha.or.kr/news/Old-MagazineView.aspx>
- Park JR, Yoo JS, Choi BK, Han SJ, Heo SS, Hwang SH. A survey of workforce into expansion of dental hygienists. Seoul: Kore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2004.
- Shin BM, Bae SM, Shin SJ, Lee HJ. Issues and challenges of dental hygienist workforce policy in Korea. Seoul: Korean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y Society; 2018.
- Shin YS, Kim YI, Kang GW, Kang MA, Kang YH, Ko GW, et al.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Council; 2013. p.92.
- Yoo EM, Han HJ. A study on the work and turnove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1;11(1):41-6.